

CSL Mission 소식

His Story

1. 이인규&이정민 선교사의 이사 이야기

하나님은 저희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 아무런 조건없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겠으니 집을 보는 순간 감동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 드렸었는데, 정말로 부동산 사이트에서 이 집의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해서 새집으로 이동해 오는 과정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돕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마치 왕의 오더를 받아서 움직이는 신하들처럼 단 한 사람도 예외없이 전력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관여된 일본인 직원들 포함)이 이구동성으로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정말로 일본처럼 룰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가 없는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 계십니다!

- 집을 파는 사람: 일본에서는 결코 터무니없이 집값을 크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처음 가격대로 사든지, 많아야 2-3천만원 정도로 딜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도중에 보여주신 금액이 있었고, 이 금액은 처음 집값에서 1억 2천만원이나 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중개업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집주인이 응대해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주말에 있을 오픈하우스에서 집이 안 팔리면 저희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겠다는 저희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응대해 주는 것이 참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 중개업자: 오픈하우스에서 두 명이 집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먼저 신청한 사람이 은행 론 심사에 떨어지면 연락을 주겠다’며 이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본래 중개업자는 집이 비싸게 팔릴수록 자신의 이익이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도왔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도 이유를 모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을 테니까요...

- 은행직원: 론 심사가 들어가면 보통은 두 달이 지나야 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3주 안에는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담당자에게 사정을 얘기했으나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넘게 걸린다.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주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고, 다들 기적이라고들 말했습니다.

- 이사업체: 2,3월은 이사 시즌이기에 한두 달 전에 이사업체를 예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5일 전에 연락을 했기에 역시 트럭이 없었으나, 한 군데 업체가 오전에 다른 집 이사를 하고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트럭이니 두어 번 왔다갔다해야 한다며 이사를 마치면 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정각 1시에 큰 트럭 두 대가 왔고, 예정돼 있던 인부 3명이 아니라 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집으로 이사짐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마치 모두가 저희를 전심으로 돕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5인 가족의 이사 비용은 평균 300-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결국 저희가 들인 이사 비용은 단90만원이었습니다. 사건을 만드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멋집니다.

- 살던 집 주인: 일본에서는 집을 빌릴 때 보증금을 미리 내 놓고, 이사를 나올 때는 보증금에서 집 청소 및 보수 비용을 빼고 돌려받습니다(저희도 4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못 자국(못 자국 하나당 얼마씩 계산) 등의 수리비용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짐을 모두 빼고나서 집주인과 함께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주인이 청구하는 대로 지불하겠다고 하며, 혼자서 점검한 후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일단 청소비용이 90만원이니 거기서부터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은, 우리 집은 소회가 온통 벽에다 낙서를 했고, 진하가 문에 주먹만 한 구멍을 내놓았으며, 구석 방의 커튼을 빼고 나니 온통 곰팡이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인테리어를 한다며 벽이란 벽에는 모두 못으로 구멍을 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돌려받기는 고사하고 수리비용을 더 낼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찌된 영문인지 98만원만 지불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집을 점검한 주인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 새집: 집을 찾으면서 이사갈 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락방

은 3-4명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200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락방이 이 정도였다면 마가의 집은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었을 것입니다. 새집이 바로 그런 집입니다.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저택이네요'라고 말하곤 합니다만...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곳으로 사용하라고 저희에게 말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관리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커튼과 에어컨 등은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방마다 달려 있는 전등도 하나하나도 떼어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새집에 들어갈 때에는 집안의 모든 등은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것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이사 와서 전등이 없다며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이 모든 것(커튼, 에어컨, 전등, 조명등까지 하나하나)이, 그것도 아주 고급 제품들로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를 그대로 들어서 이곳으로 옮겨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저희의 형편도 바뀐 것 없이, 이사비용과 새집 단장비도 전혀 들이지 않고(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보증금에서 이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대로 이동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이곳으로 옮겨 놓으셨음이 틀림 없습니다.

- 주변 환경: 소희가 이제 1학년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그 학교가 집에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 건물에서 CSL아카데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돌보면서 사역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곳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기적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이 즐겁습니다...

2. CSL선교회 이야기

1월에 오픈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정말 많은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 CSL 홈페이지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연락을 취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 선교사들이 기도로 동역하고 있으며, 어떤 분들은 무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실은, 사역의 초기이다 보니 약정금이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모여지지 않고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후원자의 손길을 통해서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명의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CSL 출판사를 오픈하여 한국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어 수업을 위해서 제작한 교재를 출간하



지 않고 가제본해서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어학교재 출판사에서는 종교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책을 원하지 않고, 신앙서적 출판사에서는 학습용 어학교재의 출판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CSL아카데미를 오픈하면서는 정식으로 출간해야 되겠기에 주님께 동역할 출판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접 출판사를 운영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였지만, 주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지요! 주님은, 기독교적인 어학교재를 출간하여 외국어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거의 접할 수 없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본어 번역본 신앙서적을

출간할 예정인데, 이 사역이 많은 일본인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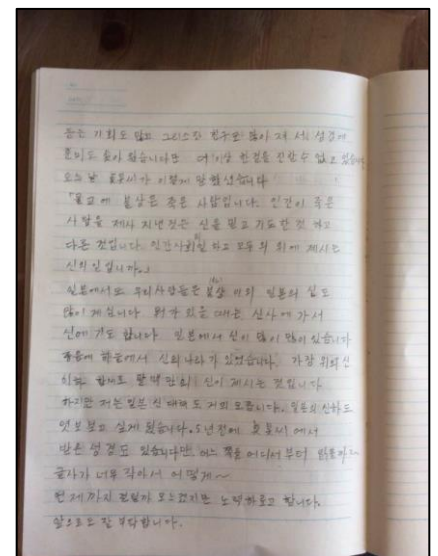
- 백석 교단 목사님들의 모임과 동경내 목사님들의 모임인 목양회에서 CSL선교회의 사역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목사님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 사역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CSL아카데미를 통한 한국어교실 사역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6개의 교회에서 CSL시스템을 사용하여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교회에서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씩,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목사님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CSL아카데미의 선교전략이 각 교회에서 잘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CSL아카데미(어학교)가 5월 둘째주부터 동경성산교회와 협력하여 개강을 합니다. 성산교회와의 만남은 참으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동경은혜교회 담임목사이신 박목사님께서 어느 금요일 저녁에 우리집으로 오시다가 이 교회를 발견하시고는, 우리집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교회에 가봐야겠다’ 하시며 즉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돌아오셔서 ‘지금 다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 아무도 없고 우리들만 예배 드린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길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려고 우리집에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교회로 갔고, 각자의 은사(피아노, 기타, 드럼 등)에 따라 즉석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살아오면서 드렸던 지금까지의 예배들 중에 가장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고 예행 연습도 전혀 없었던, 그저 성령에 이끌리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오순절날이 재현된 듯,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증인입니다. 이렇게 그날의 예배 이후, 3차례의 금요 기도회를 더 드리면서 성산교회와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종과 나라와 소속 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곳을 향하여 예배드린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이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세계 만물이 한 곳에 모여서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3. 복음 이야기

- 꾸준히 저와 일대일로 만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던 일본인 한 분(아쓰코)이 계십니다. 이 분은, 제가 이전에 살고 있던 집 근처에 사시기 때문에 제가 이사가는 것을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멀리 이사한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집들이 겸 우리집으로 초대했는데, 손수 만든 일본 전통 인형과 한국어로 직접 쓴 긴 편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국어 작문을 해 오던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 왔고, 그것을 제 앞에서 읽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어서 눈물을 겨우 참아내야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 전통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이제는 자기도 나이가 들어 가면서 진정한 신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했던 말들이 요즘 특히나 자주 떠오른다면,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성경(오래 전에 제가 성경책을 선물했었습니다)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분은 아주 신중하게 대답하길 ‘선 앞에 서있는 것 같다, 언젠가 이 선을 넘게 되면 좋겠다, 그때 정민 씨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 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쫓개어 주님 앞으로 속히 나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며 더욱 기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아쓰코 씨에게 주려고, 새로 출간된 큰 글자 일본어 성경책을 주문해 두었습니다.



- 몇 년 전부터 평일에만 섬기고 있던 일본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찾아오신 일본인 한 분(요코)이 계시는데, ‘기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나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니 계속 오고 있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분은 제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분 때문에 이사를 하게 하신 것처럼, 이 분은 너무 즐거워하면서 우리집에 오고 계십니다. 특히 5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CSL아카데미에 남편까지 등록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오래전에 약 3년 정도 한국(주한 일본 영사관에서 근무)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법 잘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부와의 교제가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셨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갑니다...

- 박목사님(동경은혜교회 담임목사)이 가벼운 수술로 2박 3일간 입원을 하셨습니다. 박목사님은 그 짧은 기간 동안 환자 및 가족들, 심지어는 간호사들까지,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두 가족이 지난 부활절 날 우리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부활절 선물에 복음 메시지(부활절의 의미)를 넣어서 한 사람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 나눈 사람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

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신 분들 중 한 분(타카하시)이 저녁이 되었는데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눈치를 보였고, 결국 이 분은 다시 또 만나고 싶다며 먼저 다가와서 저의 전화번호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CSL아카데미에 등록하셔서 5월 둘째 주부터는 매주 만나게 됩니다. 분명, 이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 명씩 붙여 주시는 영혼들을 보면서, 일본땅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 이사를 한 후 며칠 안 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집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아주머니(야마시타)를 만나게 되었는데, 맨션 앞에 서서 집을 안내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분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이 한국 요리를 좋아한다며 기회가 되면 만나자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 받고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친구 2명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여 약속 시간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고, 야마시타 상과 그 친구(강명희, 재일교포)만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명희 씨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명희 씨의 부모님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지만 자신은 일본에서 태어나 조선학교(북한 정부 관할, 당시에는 한국 정부가 세운 학교가 없었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전통 악기 공연단의 단장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있었던 북한에서 열렸던 남북 공연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명희 씨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한국과 일본과 북한의 복합적인 정체성)로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살고 있는 우리집 아이들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성경에는 사람을 두 부류(선인과 악인)로만 구분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집 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즉,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이라는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상에는 오직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만 존재한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언제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이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명희 씨는 저의 말에 깊이 동감하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도 물었습니다. 3시간이 넘게 저녁도 안 먹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곧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조만간 집으로 초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한 달 전쯤 노방전도(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전도지를 나눠주었음)를 했습니다. 그날 만난 한 여성이 CSL아카데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레벨테스트 겸 아카데미 학교를 방문해 달라고 하며 연락처를 드렸었습니다. 몇 주 뒤에 성산교회로 전화 연락이 왔는데, 놀랍게도 이 분은 예전에 교회를 가 본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혹시 예배에 참석해 볼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당연히 된다고 하였고 언제 교회에 오실까 기다렸었는데, 지난 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분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꾸준히 예배로 인도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 분에게 닥칠 영적 방해도 예상됩니다만,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로 돌파하리라 믿습니다.

4. 동역 이야기

- 동역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및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많아도 더 요구되는 것이 기도 동역자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와 선교 단체들이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CSL아카데미에서는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치열하게 '영'을 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4대 사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CSL선교회의 4대 사역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SL선교회의 4대 주요 사역>

1. CSL아카데미(어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2.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을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에 등록시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함께 동역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헌신된 주의 일꾼이 되도록 양육합니다.
4. CSL아카데미의 수익금 전액으로 일본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 그리고 일본인 신학생들을 후원합니다.

- 재정 동역자들의 약정금이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CSL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재정 동역자들은 CSL아카데미의 운영자들입니다. 현재로서는, CSL아카데미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학교 임대 비용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CSL아카데미를 오픈할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단은 장소 비용은 들지 않으나,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일부 지출하고 있으며 감사 및 간사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L출판사에서 제작되는 책의 인쇄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출판사의 수입 또한 전액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아직까지는 약정금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CSL아카데미를 운영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비용이 모일 때까지 교회 건물을 주셔서 시간을 벌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히 안정적인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약정금이 모이길 기도합니다.

CSL선교회의 4대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갈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심고, 선교사와 현지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이 일본땅이 속히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 1천엔(1만원) 약정금으로 동역하기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약정금은 해당 은행에 가셔서 매월 25일로 자동이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재정 동역자 정보 입력하기	
<일본> ゆうちょ銀行, リジョンミン 【記号】 10540 【店名】 ○五八 (ゼロゴハチ) 【店番】 058 【預金種目】 普通預金 【口座番号】 8169644	<한국> 우리은행, 이인규 1002-158-235527

- 현재, CSL아카데미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문, 이사, 원장, 강사, 총무간사, 회계간사, 서기간사, 출판간사, 디자인간사, 홈페이지관리간사, 홍보간사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이 갑자기 많아져 주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양한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동경'이라는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한국이나 타지역에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도, 너무나 간절하게 함께 동역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함께 일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일본으로 보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급하신 마음을 잘 알기에, 아마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님이 보내 주실 것입니다!

CSL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즉시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cslmission2018@gmail.com

- CSL아카데미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통로'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이 넉크리스천들을 1:1로 만나면서 그들에게 크리스천의 모델을 보여 주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수강하는 학생이 오면 즉시 1:1로 매칭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자원해 주어서 참 든든합니다. 수강생들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여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1회 1시간씩만 시간을 내어 주면 되고, 한 명의 수강생과 10회만 만나면 됩니다. 자원봉사자로 동역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정보 입력하기](#)

5. 기도 제목

'복음'을 들고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모세의 팔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쳐 주었던 동역자들처럼 기도의 동역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가능하시면 프린트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CSL Mission 기도 제목

1.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 성경통독을 통해서 아쓰코 상의 영과 혼과 골수가 쫓개지길
- 요코 상 부부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 타카하시 상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길
- 강명희 씨의 마음 밭이 복음을 들을 상태로 준비되길
- 예배에 참석했던 일본인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2. 사역을 위하여

- 신앙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해 줄 사람들이 CSL출판사와 잘 연결되도록
- 협력하는 교회들이 CSL한국어교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CSL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속히 완성되어 많은 일본인들이 볼 수 있도록

3. 동역자들을 위하여

- 스태프들의 건강과 시간관리를 위해, 그리고 스태프 충원을 위해서
-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 기도 동역자들이 많이 모이고, 이들이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 재정 동역자들이 늘어나고, 약정금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www.cslmission.com